

가마다스 돔

가마다스 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마다스’는 지역 사투리로 ‘힘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부흥력과 긍정적인 정신을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가 알려주는 것, 화산 활동으로 인한 놀라운 혜택, 미래의 재해에 대해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마다스 돔은 2002년에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파괴적인 헤이세이 분화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건물에는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최근과 아주 오래 전에 반도에서 일어난 화산 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하는 체험형 박물관과 운젠다케 화산재해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마바라 대변 극장은 1792년 분화로 일어난 대재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미시바이풍으로 그려내는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대재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마바라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은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분화 시어터에서는 헤이세이 분화의 역사와 비극을 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몰입형 영상을 통해 화쇄류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직접 전합니다.

다른 전시품으로부터는 일본 및 전 세계의 다양한 화산과 화산 근처에서 사는 것의 장점, 신기술을 통해 어떻게 좀 더 대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해로부터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